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대를 잇고, 지역이 품다

통합의 가치를 실천하며 세대와 지역을 잇는
마을기업 이야기

다시 연결된 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의 이름 아래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삶의 터전은 이제 더 넓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통합의 의미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지혜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듯,
지역 곳곳에서도 상생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통합의 가치를 실천하는 마을기업들을 만나봅니다.

하나의 이름

“옷감 하나가
온전하게 완성되려면,
세로의 씨줄과
가로의 날줄이
빈틈없이
교차해야 합니다.”

전남 벌교 주식회사 월곡영화골

광주 행복한쓰임협동조합

광주 하이퍼협동조합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광주·전남이 한 뿌리로, 세대가 엮어낸 남도의 여름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우리는 지역의 내일을 함께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마을기업들은 서로 다른 세대가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일상 속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뿌리를 공유하는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옷감과도 같습니다.

보성에 정착한 청년이 새로운 가능성을 키우고, 광주의 중장년이
버려진 자원에 새 생명을 불어넣으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청년의 감각이 만나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엮어갑니다.
전남 벌교 월곡영화골의 카페 프로메사는 청년의 도전으로 지역에 뿌리내린 약속이고,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은 업사이클링 제품에 세대를 잇는 따뜻한 손길을 담아냅니다.
하이퍼협동조합의 편집숍 여덟번째 파동은 경험과 혁신이 만나 빛어낸
세대 통합의 결실입니다. 씨줄과 날줄이 만나 하나의 옷감을 이루듯,
세대와 지역이 함께 직조해 나가는 남도의 여름 풍경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년이 머무는 벌교의 새로운 미래를 꿈꿉니다

로컬이 품다

전남 벌교
주식회사 월곡영화골

1.장건 이사가마을기업을,김소진
대표가프로메사를 이끌며세대가
함께 벌교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다.

2.벌교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식회사
월곡영화골은 지역 전체의 발전을
이끌고자 한다.



고향을 향한 작은 약속

벌교는 꼬막의 고장입니다.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자 수많은 이야기가 커커이 쌓인 근대 문화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벌교 가서는 주먹 자랑도
돈 자랑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던 곳이었습니다. 보성과 순천, 고흥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번성했고 장터와 뽕밭에는 늘
사람들의 삶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풍부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지녔음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흐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났고, 한때
북적이던 골목에도 빈 점포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향 출신 청년들은 서울과
각지에서 생활하던 중에도 ‘고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장건 이사를 비롯한 고향 선후배 12명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장학회를 만들고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갔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던 이들의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움직임은 마을기업 월곡영화골로
이어졌고, 벌교의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돼 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프로메사

월곡영화골의 발걸음은 현재 카페 프로메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메사는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공간만은 아닙니다. 주민과 관광객, 청년과
어르신, 귀촌을 꿈꾸는 사람과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하는 지역의 거점입니다.
프로메사를 운영하는 김소진 대표 역시 월곡영화골의
활동 속에서 성장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는 대학생이 된 뒤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거쳐
지금은 카페 운영과 메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노란색 인테리어와 프로메사의 대표 메뉴인 슈크림
라떼, 망고빙수 역시 김 대표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장건 이사와 조합원들은 그의 도전을
아낌없이 응원합니다. 청년을 끌어당기는 힘은 결국
청년에게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프로메사는 전라남도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교를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숨은 명소와 맛집, 여행 정보를 전하는 안내소 역할도
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주민들의 신뢰는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만큼 나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임산부에게는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지역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소진 대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나고
자란 지역에서 삶을 일구는 일이 큰 자신감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뿌리가 내린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을과 함께 쓰는 공간

프로메사는 처음부터 카페만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이면서 동시에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을 지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차장입니다. 벌교를 찾은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구도심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월곡영화골은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
확보한 부지에 넓은 주차 공간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문객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골목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장건 이사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상인들과 함께 상인회를 구성하고 개방
화장실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민상인회와
함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기반 시설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교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머물고
골목을 둘러보며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돕는 일.
월곡영화골은 카페 한 곳의 성과보다 지역 전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벌교를 꿈꾸며

월곡영화골의 도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벌교를 대표할 수 있는 꼬막빵과 주먹빵 개발,
코로나19 이후 잠시 멈춰선 게스트하우스 운영 재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새로운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건 이사는 지역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지금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월곡영화골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고향을 향한 작은 약속으로 시작된 움직임은 오늘도
벌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주민, 관광객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월곡영화골은 사람을
남게 하고 지역의 미래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❷

쓸모를 재발견해 가치를 더하는 손길

세대를 잇다

광주 행복한쓰임협동조합

일과 육아 사이에서 찾은 새로운 일터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와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더욱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싶었던 다섯 명 엄마들의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천연염색 기업에서 디자인 업무 경험을 쌓은 박미진 대표는 2014년 마을기업을 꾸리고 패브릭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광주 지역의 봉제 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샘플을 제작해 제품화를 추진하고 싶어도 소규모 생산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위기는 때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박미진 대표는 생산을 외부에 맡기는 대신 디자인과 제작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평소 관심을 가져온 업사이클링이 더해졌습니다. 자체 디자인 인력을 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봉제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협동조합에 함께한 청년 디자이너들의 감각과 박미진 대표를 비롯한 중장년의 경험이 어우러지며 친환경 패브릭 제품 개발로 이어졌고, 오늘의 행복한쓰임을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마을 전체를 작업장으로 만드는 사람들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은 사업 초기부터 제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일터를 꿈꿨습니다. 광주에는 소규모 봉제 생산 기반이 부족한 만큼 주민들이 기술을 배우고 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구평생학습관 등과 협력해 봉제 교육을 진행하며 기초 과정부터 자격증 취득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박미진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작업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은 협동조합과 함께 제품 제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단과 부자재를 재단해 전달하면 참여자들은 집에서 작업한 뒤 완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출근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이나 시니어도 자신의 일정에 맞춰 일할 수 있어 호응이 높습니다. “마을이 작은 작업장이 되는 셈이지요. 꼭 사업장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람과 수입을 함께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수료한 주민들은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개인 작업 공간을 갖추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자원에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다

업사이클링 제품에는 종종 ‘예쁘지 않다’는 선입견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의 제품은 이런 편견을 빗겨갑니다. 전시 포스터와 행사 현수막, 슬로건 배너는 자수와 봉제 과정을 거쳐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가방과 파우치 같은 생활용품은 물론 기업과 기관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굿즈와 패키지는 친환경 패브릭 제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한쓰임만의 고양이 캐릭터를 활용한 자체 브랜드 상품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제품들은 다양한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기업·기관, 전국 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제작한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어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포장재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패브릭 패키지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제작 의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폐소방복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사용이 끝난 소방복을 해체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으로, 지난해에는 약 4,000개 규모의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오염과 손상으로 해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이 함께 힘을 보태며 새로운 쓸모를 찾아갔습니다.

빈집에서 피어난 상생의 공간

현재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의 사업장은 50년이 넘는 옛 주택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간입니다. 한때 오랫동안 방치돼 풀과 잡초만 무성하던 빈집이었지만, 지금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편집숍, 작업장이 어우러진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박 대표는 기존 구조와 마당을 최대한 살리고 벽을 허물어 누구나 편하게 들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행복한쓰임이 자리 잡은 뒤 주변에도 디자인 스튜디오가 하나둘 들어서며 골목 풍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20대 청년 디자이너와 시니어 참여자들은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일상을 나눕니다. 행복한쓰임과 함께한 한 시니어 참여자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박 대표는 일자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한쓰임협동조합은 이 같은 변화가 골목을 넘어 광주와 전남 곳곳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공간,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을 만들어가며 더 많은 이들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계획입니다. 오래된 공간이 새로운 거점으로 다시 태어났듯, 사람과 자원 역시 행복한쓰임을 통해 저마다의 쓸모와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



창작자가 함께 만드는 여덟 번째 파장

미래를 열다

광주 하이퍼협동조합



다섯 개의 테이블에서 시작된 변화

2015년, 광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작품을 선보일 무대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에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아트마켓이나 프리마켓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활동하던 신수현 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왜 작품을 선보이러 서울까지 가야 하지? 우리도 광주에서 해보자.” 발상의 전환은 하이퍼협동조합의 출발로 이어졌습니다. 신수현 대표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은 동명동의 한 카페 앞에 테이블을 펼치고 그림과 염서, 캐리커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창작자들은 작품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고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누렸습니다. 이후 하이퍼협동조합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청년 문화예술시장 ‘브릿지 디마켓(Bridge D. Market)’을 운영하며 활동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6년 동안 130여 회에 걸쳐 시장을 열며 지역 창작자들의 판로를 마련했고,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마켓으로 성장했습니다. 다섯 개의 테이블에서 시작된 작은 프리마켓은 점차 더 많은 창작자와 시민을 연결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창작자의 자립을 돕는 플랫폼

하이퍼협동조합의 역할은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창작자가 작품을 만들고,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소비자화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동명동의 상생 매장 ‘여덟 번째 파장’이 있습니다. 2019년 문을 연 이 공간은 지역 예술가와 창작자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편집숍으로, 현재 전국 각지의 일러스트 작가와 공예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작품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하우스(House)’와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컬렉트(Collect)’를 통해 다양한 창작물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도 지원합니다. 하이퍼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을 통해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각종 제작 장비를 갖춘 메이커스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이 필요한 창작자들이 부담 없이 시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같은 지원은 창작자들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취미나 부업으로 시작했던 활동을 본업으로 발전시킨 사례가 늘었고,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열어 독립한 창작자들도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창작자가 지역 안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만드는 창작 생태계

하이퍼협동조합이 만들어 온 변화는 청년 창작자 지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합에는 청년 예술가뿐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약 80명으로, 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니어 브랜드 ‘위드그랜드(With Grand)’입니다. 하이퍼협동조합은 지역 노인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드로잉 교육을 진행하고, 이들이 만든 패턴과 디자인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체함에 그치지 않고 창작과 판매를 연결해 새로운 일자리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동명동 상권과의 협력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메이커스랩의 제작 장비와 공간은 창작자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카페와 상점 운영자들은 메뉴판이나 홍보물, 각종 디자인 작업을 보다 쉽게 제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소상공인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창작자와 주민, 소상공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하이퍼협동조합은 지역 안에서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여덟 번째 파장

‘여덟 번째 파장’이라는 이름에는 하이퍼협동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무지개의 색이 일곱 가지인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파장은 일곱 가지지만, 하이퍼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여덟 번째 파장’을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이퍼협동조합은 창작자들의 판로를 넓히고, 제작 환경을 마련하고, 세대를 잇는 협력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필요한 역할을 맡아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으며 협동조합의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이퍼협동조합 김도영 이사장은 조합의 원동력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꼽았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조합원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사업을 시작하면 모든 고민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함께하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하이퍼협동조합이 창작자와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이퍼협동조합이 바라는 미래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경험과 역량을 나누고, 혼자서는 어려웠던 도전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 창작자들의 작은 프리마켓에서 시작된 하이퍼협동조합은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창작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의 ‘여덟 번째 파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1. 광주 동명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소품샵으로 성장한 여덟 번째 파장의 매장 전경.
2. 전국 100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3. 여덟 번째 파장 하우스에서는 일러스트 제품을, 컬렉트에서는 공예 제품을 만날 수 있다.
4. 하이퍼협동조합 김도영 이사장. 조합의 수많은 청년 창작자가 지역을 기반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세대를 잇는 한마디

우리가 맞잡은 손이, 마을의 내일입니다.



“늘 친구들에게 별교로 언제든 돌아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곳이 아니라, 꿈을 펼칠 수 있어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되었다고요.”

전남 보성 별교 프로메사 | 김소진 대표



“마을기업은 지역에 꿈의 씨앗을 심고 함께 가꾸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작은 꿈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행복한쓰임 | 박미진 대표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사실을. 마을기업의 진심이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하이퍼협동조합 | 김도영 이사장

세대가 만나 지역에 피워낸 변화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보세요.

보성에 정착한 청년의 약속, 폐자원에 채운을 입히는 중장년의 헌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청년의 감각이 맞잡은 시장의 무대. 한 뿌리를 공유하는 전남과 광주가 세대로 이어질 때 지역의 경계는 열어지고 상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소멸을 걱정하던 자리마다 새로운 활력이 피어날 수 있음을 세 마을기업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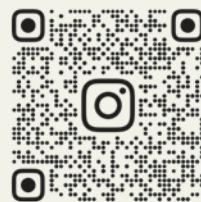
BEOLGYO_TOUR
프로메사 직접 방문하고
보성과 별교 여행하기

달콤한 슈크림 라떼와 시그니처 망고빙수가 여름의 맛을 전합니다.



APPYSSEUIM_OFFICIAL
행복에 가치를 더하는 행복한 쓰임
페브릭 제품 주문하기

버려진 자원이 새로운 쓰임을 만나 일상 속 가치로 이어집니다.



8THWAVEHOUSE_
여덟번째 파장을 찾아
로컬 아티스트 제품 구매하기

아기자기한 굿즈부터 일러스트 소품까지 일상에 감도를 더해보세요.